



얼마 전 재미미주 홈페이지(www.jaimimage.co.kr) 방명록에는 '캐나다 책방에서 발견한 자랑스러운 우리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터루에 살고 있는 여덟 살배기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고 아이에게 줄 책을 사러 갔다가 《While we were out》이라는 제목의 한국 어린이책을 발견한 이야기를 짧막하게 풀어놓았다. 이 어머니 독자가 방명록에 글을 남긴 이유는 이국땅에서 잘 만든 우리 그림책을 보고 감격했다는 것이었다. 독자가 언급한 재미미주의 책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출간돼 있는데 특히 지난해 〈뉴욕타임스〉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돼 국내 출판계의 화제가 됐던 책이다. 이 그림책의 작가는 다름 아닌 재미미주 출판사 대표 이호백 씨. 그가 운영하는 재미미주는 이미 2002년도에 《노란우산》(류재수 원작·그림)이란 책으로 국내 최초 〈뉴욕타임스〉 올해의 우수 그림책을 수상했고 이후

에도 민화그림책, 판소리로 듣는 옛이야기 등 색깔 있는 어린이책을 줄곧 출간해 오며 주목받는 어린이 출판사로 약진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이 세계적인 신문이긴 한가 봅니다. 한 달에 몇백 부밖에 안 나가던 책이 수상 후 몇천 권대로 늘었으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실 해외 교민들이야 우리나라 책을 보면 반가운 게 당연한 일일겁니다. 어떤 지역의 경우는 2세대들이 볼 만한 우리 어린이책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곳을 해외 시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어 시장으로 넓게 생각하려는 논의들이 계속돼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올해의 우수 그림책은 〈뉴욕타임스〉가 한 해 동안 출간된 그림책 중 최고의 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11월 셋째주 북리뷰 스페셜 섹션에 발표된다. 특히 지금까지 가브리엘 뱅상, 유리 슐레비츠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기에 더욱 영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내용 중 핵심이 되었던 것은 새로운 것,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가 깊어지는 그림책을 선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쓴 책은 특별히 새롭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의 소재로 얻게 된 감정을 아주 소박하게 담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씨가 쓰고 그린 후 출판까지 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는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 매우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토끼이야기다. 빈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립스틱도 바르며 어린아이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어느새 인기척이 들리자 제자리로 돌아간 후 시치미를 떼며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떨어진 토끼똥들이 토끼의 하루 행적을 고스란히 알려준다. 어른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으나 그림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동심童心の 시선은 분명 토끼가 싸는 똥을 미리



그림책이 숨겨논 '즐겁고 유쾌한' 가능성 찾기

부터 발견하고 미소지었을 테다.

“토끼를 키우다 보면 토끼똥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눈여겨보지 않지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우리 일상의 즐거움을 독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집 밖에 있을 때 집 안에 있는 토끼가 한나절 동안 똥 했을까를 상상해 보는 여유와 즐거움도 누려볼 만합니다.”

이호백 씨가 재미마주 이름을 내걸고 만들고 싶은 책도 이처럼 '즐겁고 유쾌한 책'이다. 재미마주란 출판사 이름에도 이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재미마주'는 우리말로 '재미를 마주하는 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편 붙어 '이마주'에 빗대볼 땐 '나는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의미로도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미지와 이야기를 마음껏 접하고 즐기자'며 '놀이개념'을 포용한 출판사의 철학을 담은 이름이다.

“1996년에 출판사를 시작해 지금껏 재미마주 운영과 그림책 작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워낙 그리고 만드는 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책 만드는 일도 무척 즐겁더군요. 그러다가 출판사를 찾아 다녀야 하는 소모전을 치를 바에는 아예 직접 출판사를 운영해 보자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재미마주가 경쟁력을 발휘한 시장은 국내시장만이 아니었다. 이씨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왔는데 특히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는 한국적인 그림책을 앞세워 외국 출판관계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물론 우리의 미적 감각이 세계의 그 어떤 감각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이씨는 우리 출판계가 스스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외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잘 읽어내면서 세계 그림책 시장에 객관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한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우리가 만든 책을 외국에 가져가 그 나라 언어로 수출하거나 저작권 자체를 수출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지금은 주로 저작권을 파는 경우의 사업이 많고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인데요. 앞으로는 직접 그 나라 언어로 생산해 수출하는 길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도서전에 가보면 그림책의 경우 그래픽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게 관건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내용발상과 연출이 선행되면서 실험적인 그림작업이 나와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미마주에서 출간된 책목록을 살펴보면 재미마주는 그림책 위주의 출판에 힘을 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동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만으로 아직 “시도할 일이 많다”는 이씨의 의지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사실 대학시절 써오다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장편동화도 한 편 있지요. 특히 그림책 분야에서는 할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진도 나가는 게 어렵군요. 그것들을 다 언제 진행하고 이룰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림책이든, 창작동화든 분야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호백 씨가 어린이책을 만들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자연스럽고 예술적이면서도 어린이를 무조건 교육시키려 들지 않는 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씨는 앞으로도 재미마주란 이름으로 그림책이 갖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험할 의지로 꼭 차 있다. 토끼를 가르면서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의 책처럼 일상의 소재를 감각적인 그림책으로 탄생시킬 '재미' 만드는 작가 혹은 출판사 사장으로서의 행보가 출판계에 또 어떤 화제를 불러올지 자못 기대된다. ■

취재 김정연 기자·사진 재미마주 제공

